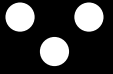


예술가 박혜수 비평집

질문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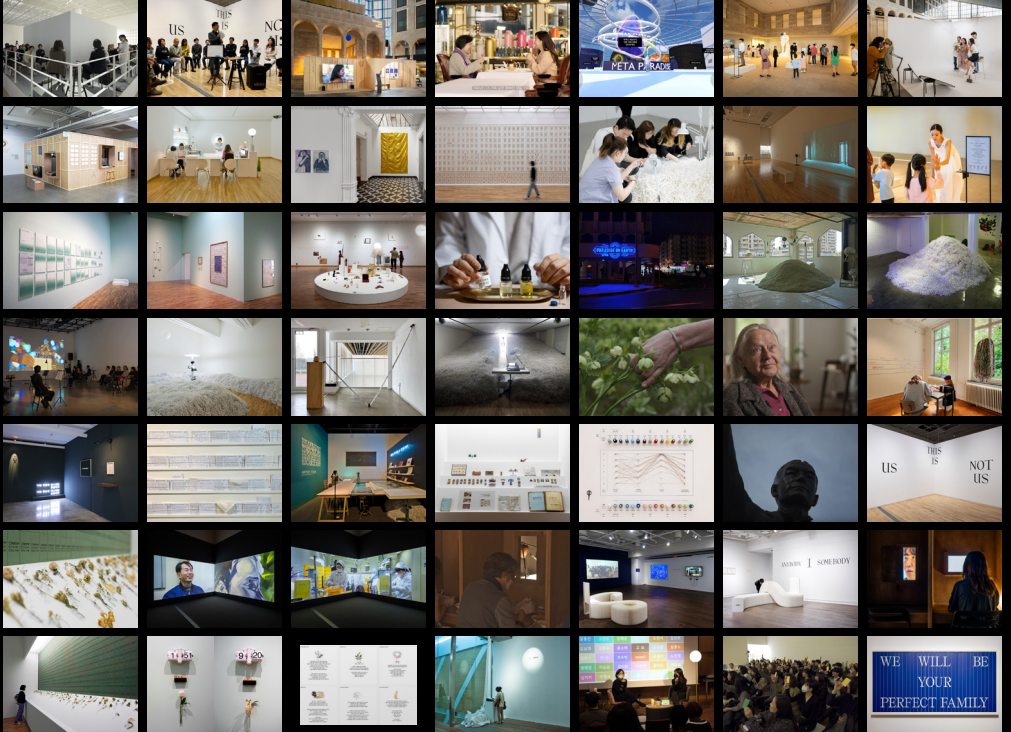


Artist Park Hyesoo: A Critical Study

A Questioner

소책자

© 2024 Park Hyesoo and all contributing writers



소개 비평집에 부처
 - 남용, 이경미

작가 소개 및 대표작품 해제
 - 이경미

비평 예속과 냉소를 관통하며 사회를 재구성하는
 무용한 예술의 효능을 위하여: 박혜수 작가론
 - 남용

 구심력과 원심력: '예술의 종말 이후' 예술의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 안진국

 고립된 삶을 발견하고 연결 짓는 사회학적
 태도의 예술: 프로젝트 대화
 - 김지연

 The Last: 우리가 모르는 우리
 - 카르멘 로렌제티

 마음을 관찰하고 공동체를 엮는 윤리의
 미학적 실험: 애도 프로젝트
 - 김동일

 '사랑'과 '우리'에 관한 다른 관점들: 굿바이
 투 러브에 관한 대담
 - 노명우 & 발렌테인 비방크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으로서의 예술: 토론극장: 우리_들
 - 이경미

아카이브 박혜수 컬렉션 2000-2023과 작가연보
 - 양윤정

박혜수는 조각·설치를 기반으로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의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다학제적이고 참여적인 예술 작업을 기획하는 시각예술가이다.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2008~), [“꿈의 먼지”](#) (2009~2017), [“보통의 정의”](#) (2011~2021), [《Now Here is Nowhere》](#) (2016), [“우리가 모르는 우리”](#) (2017~),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 (2022) 등의 전시를 통해 작가는 시간, 꿈, 보통, 집단, 관계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보편적 개념에 주목해왔다. 가까운 이의 죽음, 국내외 레지던시에서의 체류 경험, 우연히 듣게 된 옛 테이بل의 대화 등 작가가 마주했던 특정한 장면과 순간들에서 비롯된 질문은 공동체와 개인, 꿈과 현실, 삶과 죽음, 상실과 애도에 대한 작가의 깊이있는 주제의식으로 연결된다.

작가에게 있어 작업 과정은 매 작업의 주제와 형식의 구간을 이루는 매우 독특한 특성이다. 작업은 각 주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경험을 수집하는 설문조사를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응답 수집 및 분석의 결과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다학제적인 협업으로 이어진다. 인식과 경험 사이의 간극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부조리는 설치 및 영상 등으로 가시화되고 책자 퍼포먼스, 실험극, 토론회 및 출판 등으로 공론화된다. 관객은 작업 안에서 일정 부분 참여와 개입의 여지를 획득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질문하며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을 얻게 된다.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하였으며, 200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 로마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여러 기획전과 2023년 제15회 샤르자 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2014년 송은미술대상 대상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에 올랐다.

일러두기
 프로젝트명은 큰따옴표(“”),
 전시명은 겹화살괄호(Ⓢ), 작품명은
 홑화살괄호(〈〉)로 표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졌나요?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

어떤 꿈을 포기했나요?

"꿈의 먼지"

(당신은) '보통'이세요?

"보통의 정의"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당신의 첫사랑은 어떠했나요?

"굿바이 투 러브"

우리 모여 살래요?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

우리에게 몇명의 친구가 필요할까요?

"토론극장:우리_들"

박혜수의 작업은 다소 평범하고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각 프로젝트는 길게는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여러 단계와 형식을 거치며 상호보완의 방법론적 특성을 통해 주제에 깊이를 더하고 외연이 확장된다.

작가의 주요 작업으로서 비교적 초기작에 해당하는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2008~)는 [〈Shadow Drawing〉](#)과 [애도 시리즈](#)로 파생되며 구성된다. 아버지의 죽음에서부터 코로나19 유족들의 사연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 상실과 감정을 다루며 애도의 자리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조명한다. 한편 총 5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프로젝트 대화' 시리즈(2009~)는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할만큼 중요하다. ["꿈의 먼지"](#)(2009~2017)는 현실을 위해 포기하고 탈락한 꿈에 관한 추적을 통해 사회 속 개인들의 양태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여기에 점술사와 정신과의사, 조항사 등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시간과 감정에 관해 논하는 [〈오래된 약국〉](#)(2011, 2021)이 파생된다. ["굿바이 투 러브"](#)(2013~2023)는 실연자, 공장 노동자와 네덜란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첫사랑'의 기억을 오브제와 텍스트, 인터뷰 등으로 수집하고, 개인의 기억과 감정 속에

묻어나오는 사회적 환경과 세대적 차이를 반추해본다.

["보통의 정의"](#)(2011~2021)는 사회적 표준으로서 '평균'이 가진 모순을 재조명하고 평균적인 삶을 위해 스스로 소거하고 탈락한 것들 속에서 개인들의 오늘에 주목한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2019~)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토양 아래 만들어진 집단 이데올로기와 개인의 경험들을 담아보고자 기획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파생된 [〈퍼펙트패밀리 주식회사〉](#)(2019~)와 [〈토론극장:우리_들〉](#)(2019~)은 고독사 및 감정외주사회로의 전망을 역할대행 서비스업체로 분하며 현실을 비평하는 가상의 리얼리티를 만들고, '편가르기', '혐오', '은둔형외톨이' 등 사회적 문제를 렉처 퍼포먼스, 실험극 등 관객 참여적인 공론장으로 만들어 토론의 자리를 모색한다. 그 외 '프로젝트 대화' 시리즈로 ["예술가로 살아남기"](#)(2010~)와 ["대화 아카이브"](#)(2008~2011) 등이 있다.

작업의 방법론은 크게 '설문조사', '연구/협업', '해석/표현', '출판/교육'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의 주제가 점차 고도화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작가는 예술가이자 리서처이자 연구자, 기획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각 과정은 전시공간에서 전시 혹은 프로젝트의 형태로 발표된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중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된다. 도출된 결과물은 이후 분석 및 주제 심화연구를 위하여 타예술가와 협업하며 다원적 예술방식의 실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작가의 재해석이 들어간 작품은 최종 단계에서 제작되며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경우에 따라 렉처 퍼포먼스나 실험극, 출판과 같이 참여관객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공론장이 조성된다. ["굿바이 투 러브"](#) 프로젝트를 예로 들자면, 기획전 [〈마음현상: 나와 마주하기〉](#)(부산현대미술관, 2019)가 '설문조사', [〈아트디램: 실연활용법〉](#)(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2021)은 '연구/협업'의 과정이며, 개인전 [〈모노포비아-외로움 공포증〉](#)(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2022)이 '해석/표현', 잡문집 ["굿바이 투 러브"](#)(갓고싶은책, 2023)가 '출판/교육'의 과정에 해당된다.

마음을 관찰하고 공동체를 엮는 윤리의 미학적 실험:
애도 프로젝트

“박혜수는 앓을 ‘늘 그렇고 그런’ 세상살이의 늪에서 건져낸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마음의 굳은살을 도려낸다. 이렇게 찢겨지고 상처받은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된다. 박혜수의 애도작업은 그저 개인의 아픔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자와 관객, 시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내는 윤리의 미학적 실험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

— 김동일, 문화사회학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윤론, 삶의 의지로서의 미술』(2002)로 한국예총 미술평론 신인상을, 『전후 한국화단의 양식투쟁 과정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2009)로 한국사회학회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예술을 유혹하는 사회학: 부르디외 사회이론으로 문화읽기』(갈무리, 2010)로 월간미술대상 학술평론 부분을 수상했다. 『상징투쟁의 사회학: 예술가는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커뮤니케이션북스, 2020)가 대한민국의학원 사회과학분야 우수도서에 선정되었다. 예술현상을 사회학의 눈으로 보고, 사회학적 개념을 미학화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도르노와 벤야민, 하우저, 단토와 부르디외, 라투르의 교차점에서 사회학의 비평적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고립된 삶을 발견하고 연결 짓는 사회학적 태도의 예술:
프로젝트 대화

“사회 아래에 깔려있는 가늘고 연약한 것들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박혜수 작가의 질문은, 막연한 이상을 좇거나 적나라한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감이 아니라, 개별 존재와 소통하고 가려진 마음을 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서로 고립되지 않도록 연결하고 마침내 연대하기 위한 것이다.”

— 김지연, 미술평론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술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문화예술비평지 <크리티크 M>의 편집위원이다.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맨 노블레스』, 미술무크지 『그래비티 이펙트』, 웹진 『채널에스』, 컬처아카이브 『픽』 등의 필진으로 있으며, 그 외 다수 매체에 미술과 문화에 관한 다수의 비평문을 발표해왔다. 저서로는 『필연으로 향하는 우연』(그레파이트온핑크, 2023), 『반짝이는 어떤 것』(선드리프레스, 2022), 『보통의 감상』(2020), 『마리나의 눈』(그레파이트온핑크, 2020)이 있으며, 공저로 『당신을 보면 이해받는 기분이 들어요』(2023)가 있다. 『질주하는 세계, 그럼에도 지금 여기 '있는' 몸』으로 2024년 조선일보 주최 신춘문예 미술평론 부문에 당선되었다.



예속과 냉소를 관통하며 사람을 모으고 사회를 재구성하는
무용한 예술의 효능을 위하여: 박혜수 작가론

구심력과 원심력: '예술의 종말 이후' 예술의 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히키코모리와 공단의 노동자, 국경을 넘어온 탈북민,
무연고자들의 죽음을 수습하는 유품정리사와 장례지도사,
낙인으로부터 죽음까지도 함께할 수 없던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을 찾아다니는 시도들은 일종의 사회적 경계를
있는 회로를 생성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은
다음표에 묶인 추상적인 가치로부터 미끄러지고,
가치가 성립되기위해 철저히 미끄러짐 당하는 이들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며 보안을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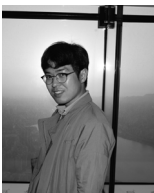
“박혜수의 작업은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즉시적으로 미술을 구분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형식적 특징, 바로 세련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박혜수는 작업이 순간의 이벤트로 휘발되지
않도록 작업 하나하나를 미감을 기초로 조형하고,
배치하고, 기록한다. 박혜수의 작업에서 저자성은 단순한
축매 역할로 축소되지 않으며, 조형성은 부수적인 것으로
격하되지 않는다. 개념의 밀도와 미학적인 고려가 윤리적
판단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

— 남웅, 미술평론가

예술학과 미학을 공부했다. 동시대 몸과 주체성, 젠더와 섹슈얼리티,
사회와 공동체, 매체와 스킨십에 관심을 가지며 비평과 사회 운동을
병행한다. 『동성애자 에이즈 재현에 관련된 논의- 에이즈 위기부터
오늘의 한국사회까지』로 2011년 제4회 플랫폼 문화비평상 미술비평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2017년에는 『오늘의 예술 컬렉티브- 과거의
논으로 현재를 보지만, 얼마 동안 빛이 있는 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로 제2회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했다. 공저로는 『감염병과
인문학』(도서출판 강, 2014), 『메타유니버스—2000년대 한국미술의
세대, 지역, 공간, 매체』(미디어버스, 2015), 『한국의 논점 2017』
(북바이북, 2016), 『앵콜』(토탈미술관, 2022) 등이 있다. 최근 주요
미술 비평으로 「당신을 지지한다」는 문장의 곤란함에 관하여, 『세마
코랄, 2022), 「쾌락의 열병, 커뮤니티라는 그늘을 따라- 쿼터 미술
산보하기』(행성인 웹진, 2023)가 있다. 현재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 적을 두고 있다.

— 안진국, 미술평론가

안진국은 2015 조선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하는 공간으로」라는 글로 당선되어 평론을 시작했으며,
종합인문주의 정치비평지 『말과활동』의 편집위원(2016~2017)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출판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고,
대학에서 기술매체 및 예술 이론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투유: 당신의 방향』(공저, 앨피, 2022), 『불타는 유토피아: '테크네의
귀환' 이후 사회와 현대미술』(갈무리, 2020), 『한국현대판화
1981-1996』(우란문화재단, 2019), 『비평의 조건: 비평이 권력이기를
포기한 자리에서』(공저, 갈무리, 2019), 『기대감소의 시대와 근시
예술』(공저, 옐로우헌팅독, 2017) 등이 있다. 주요 학술 논문으로는
「예술 체제에서 NFT의 의미와 한계 - 디지털 아트와 변증법적 운동에서
크립토 아트의 위치」(『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3집, 2022), 「The
Multilayeredness of Mobility and the Visual Art Language:
The Material Turn, the Inequality in 'Mobility Capital', the
Hierarchy in Mobility, and Art」(International Journal of
Diaspora & Cultural Criticism, Vol.12 No.2, 2022) 등이 있다.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이 예술:
토론극장: 우리_들

The Last: 우리가 모르는 우리

“본인이 중요한 참가자라는 인식을 통하여 주체가 되는 경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관해 인식하는 것. 또한 다른 참여관객과의 협업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관하여 사유하는 것. <토론극장: 우리_들>은 “토론연극”의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관객 스스로가 현실 세계의 불화를 다독이는 실존적 위안을 얻는 일종의 배움과 경험적 지식을 만들어 가기를 도려한다.”

“박혜수의 작가적 특성은 현재를 과거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의 결과로서 다층적이고 다학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치, 문화적 맥락에 관한 고유의 해석을 기반으로 그녀는 한국과 세계, 예술과 예술 시스템을 비교한다. 이는 결코 ‘동질하고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보편주의적 시각(universalistic vision)이 실제로 숨겨놓은 서구 세계의 이념적 지배, 그리고 문화와 시장 지배 놓고 벌어지는 여러 갈등의 결과물이다.”

— 이경미, 독립기획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금호미술관 학예실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독립기획자로서 <사라지지 않는 1>(2019), <계란후라이, 나, 선홍빛, 골드베르크>(2021), <2045 거주(불)가능 도시>(2024) 등 도시개발과 인구소멸, 에너지 전환 등 동시대적 사회이슈에 주목하고, 커뮤니티와 도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참여 예술 프로젝트 및 리서치를 기획하고 있다. ‘만아츠 만엑츠’의 큐레이터를 활동하였으며, 현재 ‘퍼블릭 퍼블릭’의 공동 디렉터이자 ‘점점점 프레스’의 편집장이며 예술가 박혜수와 <토론극장: 우리_들>을 공동기획하고 있다. 발표 글로는 「도시의 미래를 지금 여기’의 삶으로」(문학잡지 킷, 2023), 「창발하는 순간들을 조우하며」(스페이스 씨, 2022), 「인간과 기계, 공진화하는 주체들」(제로원, 2021)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공간을 구현하는 ‘우리-거울 건축’ 연구」(2018)가 있다.

— 카르멘 로렌제티, 볼로냐대학교 교수

카르멘 로렌제티는 볼로냐 대학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밀라노 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볼로냐 대학교 미술 아카데미 교수로서 동시대 미술의 역사와 최신 동향을 가르치고 있다. 르 가이드 다르테(Le Guide D’Arte)를 설립하고 2004년까지 디렉터로 재직하였다. 1992년 16~17세기 조각에 관한 에세이를 출간한 이래로 출판 활동을 해왔으며, 『Stanza Rossa』, 『My Media』, 『Arte e Critica』, 『Exibart』, tropicodelcancro.net, ArtsLife 등의 다양한 저널에 글을 기고하였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다양한 국제 회의를 조직하고 볼로냐 아카데미에서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기획했으며, 2023년에는 도큐멘타 2022의 큐레이터인 루앙루파와 협력하고 책 『RiparAzioni』에 에세이 「From I to us. The force of the collective and of relations」를 실었다. 대표 저서로는 『이미지와 단어 사이의 항해』(2015); Imaging Italy』(2017), 『이탈리아의 젊고 유명한 예술가들에게 헌정된 1권부터 5권의 책 시리즈 EX』(2018-2023)가 있다. 최근 주요한 예술 에세이로는 「Art and Society: some examples」(2022), 「The psycho-sexual theater of Vito Acconci」(2003)가 있다.



‘사랑’과 ‘우리’에 관한 다른 관점들:

굿바이 투 러브에 관한 대담

— 노명우, 사회학자

노명우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아놀드 쇤베르크의 신음악이론에 대한 테오도르 W. 아도르노의 독해를 주제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시에 사회예술 전문 책방 ‘니은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세상물정의 사회학』(사계절, 2013), 『인생극장』(사계절, 2018), 『두번째 도시, 두번째 예술』(북인더랩, 2020), 생각학교를 구상하며 쓴 『교양 고전 독서』(출판사 클, 2023) 등이 있다. 예술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매개된 사회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로서 예술에 깊은 관심으로 2019년 <토론극장: 우리_들> 2막의 패널로도 참여하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자전적 사회학과 관련된 저서를 지속적으로 쓰고 탐구하고 있다. 예술 관련 대표 저서로는 <아방가르드>(책세상, 2008),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아도르노와 쇤베르크>(문학과학지성사, 2002)가 있다.

— 발렌테인 비방크, 네덜란드 마레스 디렉터

발렌테인 비방크는 네덜란드 Zeeuws 미술관의 관장을 역임하고, 현재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현대문화공간 마레스(Marres)의 디렉터이다. 2020년과 2021년 아르고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의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 간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협업 담당자로 참여한 바 있다. 네덜란드와 유럽을 중심으로 《The Painted Bird: Dreams and Nightmares of Europe》(2017), 《Dreaming Awake》(2018), 《Museum Motus Mori》(2019), 《The Waves》(2020)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는 마레스 에서 열린 기획전 《Goodbye to Love: Conversations of Everyone with Sealed Lips》를 통해 네덜란드에 박혜수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다.

아카이브: 박혜수 컬렉션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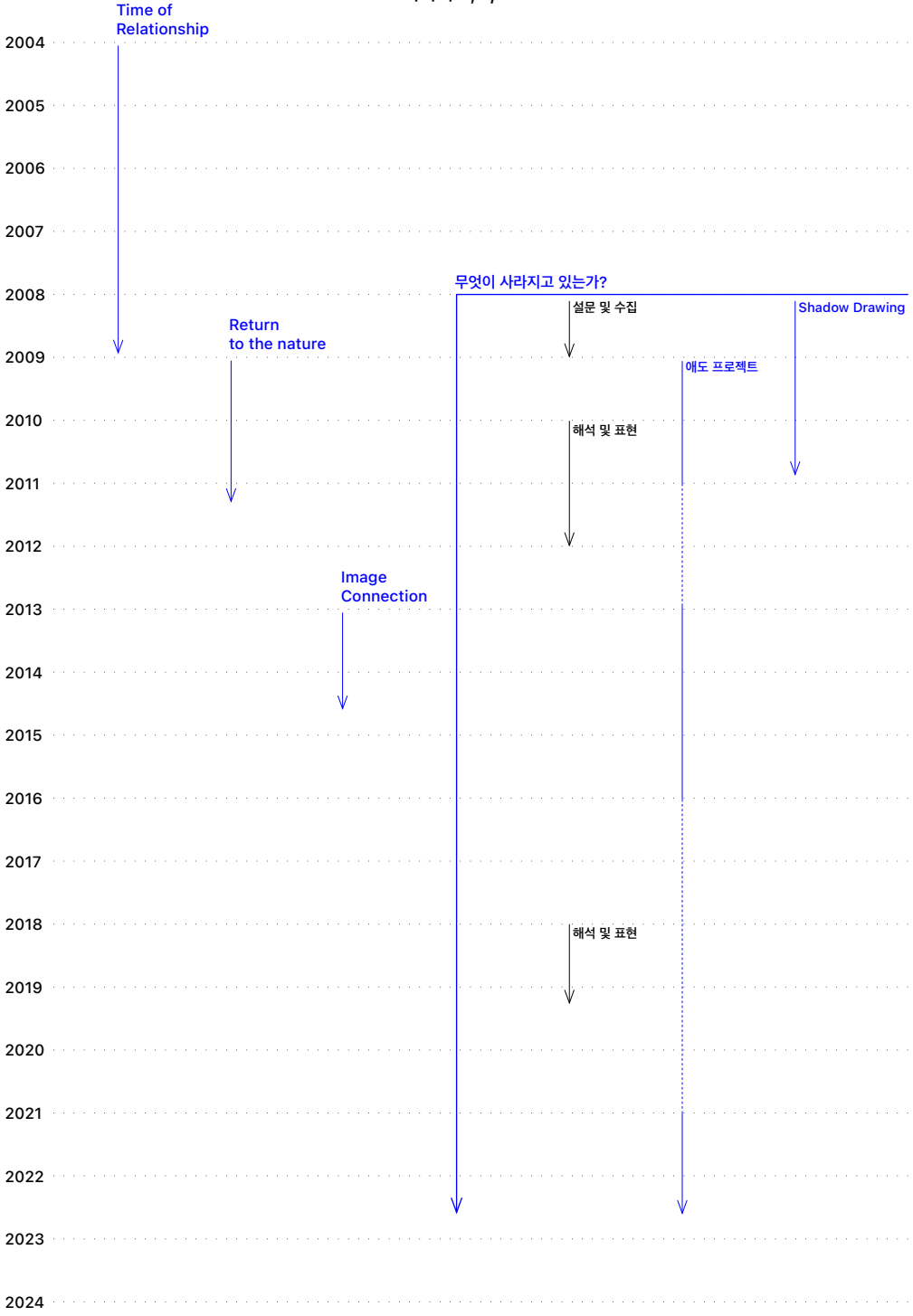
“박혜수 작가의 아카이브에는 작가의 초기 활동기부터 현재(2023년기준)까지의 전체 목록, 대표 이미지, 주제, 유형, 매체 등이 실려있다. 이 목록은 200여건이 넘고 보는 이로 하여금 딱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연보와 작품 주제별 분류표, 작가 홈페이지 정보와 아카이브가 접목이 된다면, 이미지 중심의 분류 체계에 의존하여 작품이나 작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한층 더 입체적으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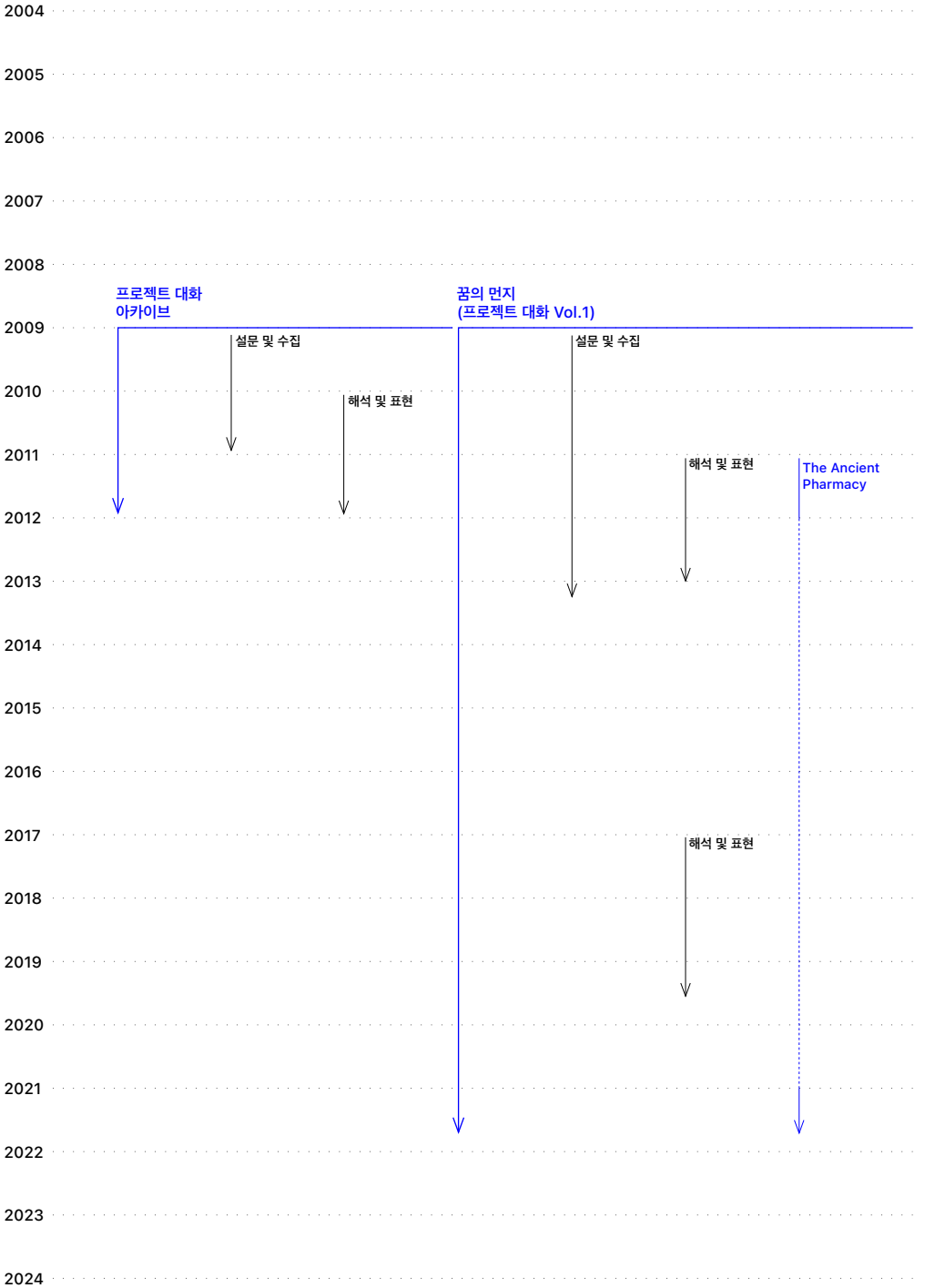
— 양운정, 아키비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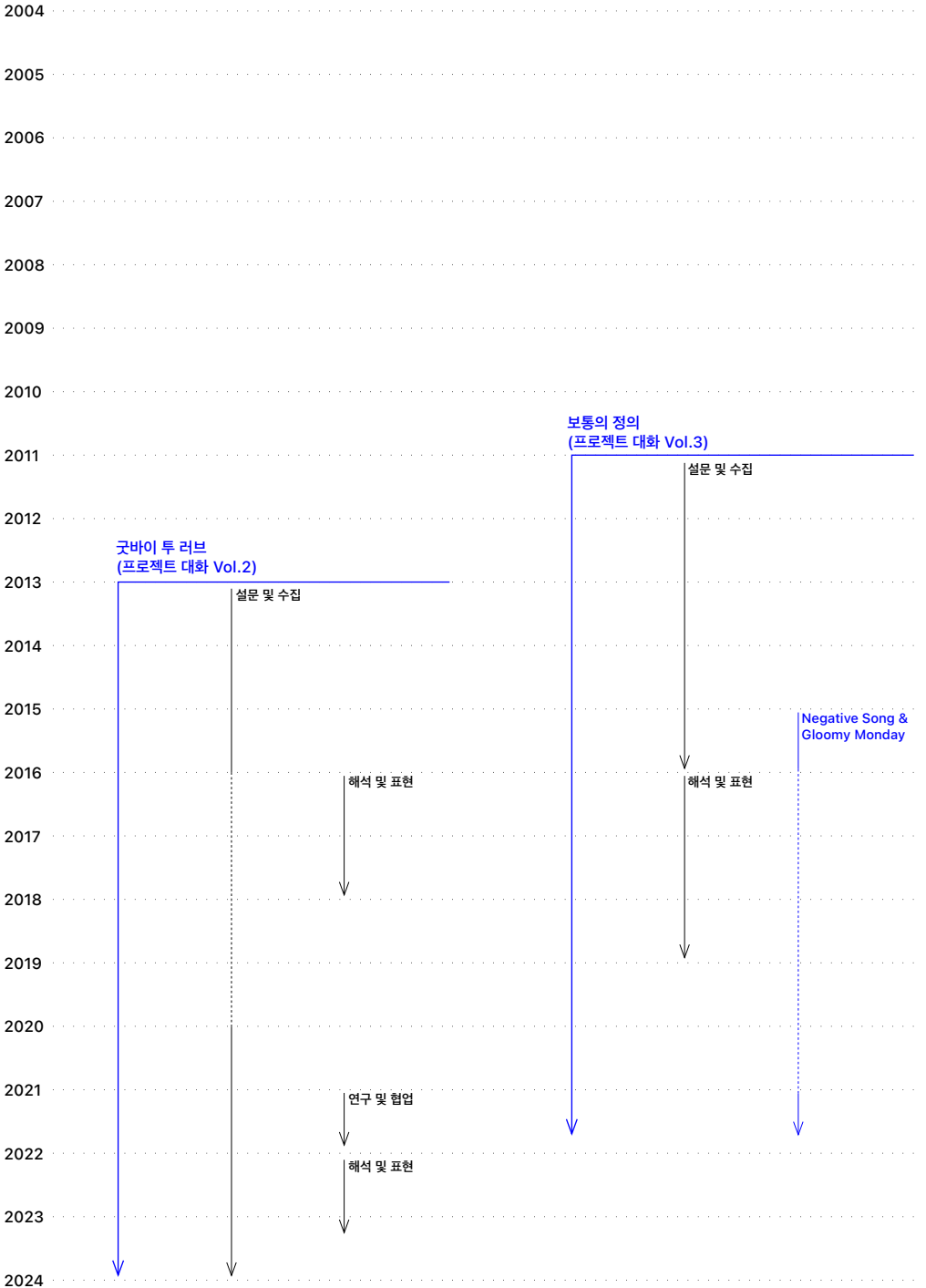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 전문사를 졸업하였으며,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예술기록 관리 전문 인력양성 심화 워크숍 과정,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연구센터에서 인턴십을 수료하였다. 2018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 지원 사업 - 심문섭 작가 연구팀」의 연구 보조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근대미술팀 근대자료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2021),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2021), 《The Space Between: 한국미술의 근대》(LACMA) (2022), 《문산: 우주를 향하여》(2022), 《가장 진지한 고백: 장육진 회고전》(2023) 등에서 근대미술 연구 및 수집자료 아카이빙, 디지털 사업 및 전시기획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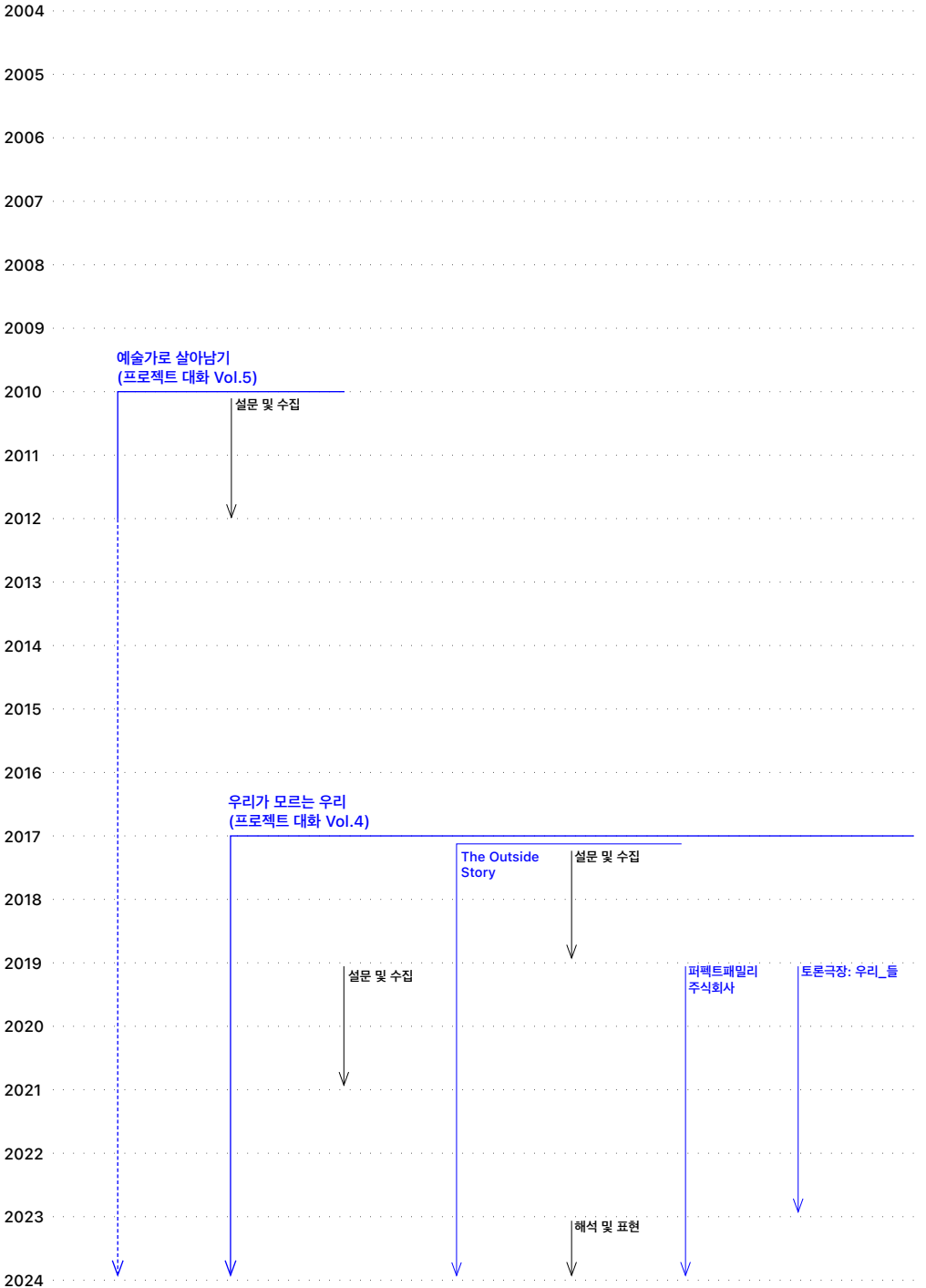


아카이브, 1/4









기획
이경미

협력 기획
남웅

기획 자문
김지연, 박혜수, 안진국

아카이브
양윤정

기획 보조
이희옥

디자인
김민재

편집
김동일
김지연
남웅

노명우
안진국
이경미

카르멘 로렌제티
발렌테인 비방크

*

아카이브:
박혜수 컬렉션 2000-2023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소책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
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